



# 海外業界動向

## '92년 세계 경제성장 3% 예상

國際通貨基金(IMF)은 최근,今年の 세계의 경제성장이 최근 10年間 최악인 1% 전후를 나타냈으며, 내년은 3% 정도의 성장이 예상된다는 예측을 나타냈다.

이 예측은 10월에 태국에서 개최되는 IMF·IBRD年次總會에서 정식으로 보고될 예정이다.

그에 의하면, 작년 8月 이후의 페르시아만 危機를 계기로 하락한 세계경제는 美國의 경기회복 등으로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며, 금리와 석유가격의 인하로 상승세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美國의 경기회복은 지속되고 있어, 再하락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내년은 약3%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성장에 대해서는,今年の 4%이상에서 내년에는 약4%로 약간 減速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東歐諸國의 경제에 대해서는今年까지 계속된 하락이來年은 안정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련만은 내년에도 마이너스성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世界 半導體 製造장비 市場

미국의 市場調査會社 Market Intelligent Res

earch社(MIRC)의 최신 보고에 의하면, 세계의 반도체 제조장비 시장의 매출은 1990년에는 76億弗이었으나, 1997년까지의年間 성장률에서 11.7%가 신장되어 170億弗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요인으로서, 컴퓨터 업계 이외의 반도체장비의 사용, 고속장치의 수요증가, 메모가 비트 메모리 칩의 수요를 들고 있다.

출하율은 수입의 신장에 의해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고도기기장치의 원가상승이 원인이라고 한다.

析出裝置 시장의 매출은 1990년에는 952대, 41億 5,000万弗에年間 성장률은 23.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tching 장치판매는 1990년에 1,383대, 9億 6,500万弗이었던 것이, 7年後에는 2,365대, 20億弗을 초과, 연간 성장률은 1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온注入裝置는 1990년에 243대, 4億 8,000万弗이상의 매출이었던 것이, 1997년에는 12.8% 증가한 491대, 10億弗의 매출이 예상된다. 高에너지 注入技術은 Epitaxial 爐로 대체될 것이라고 한다.

擴散爐의 1990년 매출은 368대 2億 6,400万弗이었다. 1997년까지는 14.2% 증가한 507대, 6億 4,000万弗로 예상된다.

擴散技術의 주류는 열처리, 즉 단말장치환경에 통합할 수 있는 것이다. 싱글웨이퍼 처리도 수직爐와 같이 중요하다. 마이크로 거소그래피

장치는 1990년에 1,394대, 19億弗의 매출이었다. 7年後까지는 10.1% 증가할 1,460대, 36億弗이 일본의 매출이 예상된다.

반도체 제조장치 메이커의 상위 10社중 5社, 美國은 4社, 歐洲 1社이다. 美國의 소기업의 흡수 합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의 저하가 현저하다고 한다.

미·일 數社가 협력관계를 체결하여 「休戰狀態」에 있는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990년의 세계의 반도체 제조장비 판매는, 美國이 39.1%, 歐洲는 10.2%, 나머지 50.7%가 日本과 기타 지역이다. 1997年까지 일본과 他 지역이 55.9%로 증가하였고, 歐洲는 13.5%, 미국은 30.6%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미국의 중소기업, 컴퓨터 도입에 적극적

미국의 중소기업이 전산기 도입에 의한 합리화와 코스트삭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독립계 기업인 연합조직 NFIB에 의하면, 종업원 500명 이하의 기업의 2/3가 관리사무작업에 전산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전산기 도입에 의해 충분한 성과를 올리고 있지는 못하다. 종업원의 전산기 조작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경영자 사이에서 보여진다고 한다.

NFIB에 의하면,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문제는 표준소프트로는 自社의 고유의 문제를 좀처럼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社內에서 전산기 Expert를 육성시키는데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조력을 얻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이 때문에, 금후는 중소기업의 전산기 활용을 지원하는 눈치가 빠른 소프트웨어 社에 찬스가 도래할 것으로 NFIB는 보고 있다.

이미 IBM도 이 분야에 착목하고 있다. 동사는 중견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무료의 전산기 연수 코스를 개시하였다. 목적은 이것을 지레대로 하드웨어의 판매를 신장시키는 데에 있다.

동사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전산기를 도입하고 있는 중견기업 중에서 기계를 자금계산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전체의 73%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14%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 일본 마쯔시다, 비디오 라이브러리 시스템 개발

松下電器는 비디오 테이프를 VTR에 삽입하는 것만으로 자동예약 녹화가 가능하고, 또한 테이프에 녹화되어 있는 내용이 화면상에 리스트 표시되는 비오 라이브러리 시스템을 개발, 신제품에 채용하였다. 테이프의 녹화내용을 자동판별하는 것은 세계에서 최초의 제품인데 금후 시장의 반응을 보고 전기중에 내장할 계획이다.

同시스템은 바코드 인덱스를 카세트에 감아 삽입시에 스캐너에서 Reading하여 VTR본체가 테이프의 녹화 테이프를 기억하는 구조이다. 테이프의 관리는 최대 99卷까지 행하며, 화면상에서 녹화내용의 리스트, 全卷의 장르별 리스트 등이 표시되어서, 가솔린에서 선택하여 재생이 가능하다.

또한 同時刻의 연재 프로그램의 녹화는 한번 설정하면 동일 테이프를 삽입하는 것만으로 예약이 완료될 뿐만 아니라, 화면상에서 각테이프의 녹화내용의 해소, 표시변경 등이 가능하다. 워드프로세서, 퍼스컴의 FD(플로피 디스크)의 관리 시스템기술의 응용이며, 또 一步진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동사에 의하면, 비디오 테이프의 보유권수는 1세대 당 50권인데, 그중 녹화되어 있는 내용을 모르는 테이프는 20권이나 있다고 한다. 今回の 시스템은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9校의 바코드 인덱스는 VTR에 同梱된다.

### 마쯔다와 필립의 AV부문 합작

歐洲共同體(EC) 위원회는 멀지 않아, 네델란드의 Philips Electronics와 松下電器産業이 요구했던 Audio Video (AV) 기기제조의 합작기업 설립을 承認할 전망이다.

EC국의 고관이 EC의 기관지에서 표명한 것으로, 그것에 의하면, 동사의 사업제휴는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부분이 클뿐만 아니라, 歐洲의 기술혁신에 대한 공헌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합작기업은 서로 다른 메이커의 Audio 기기를 하나의 리모콘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형성에 대응할 계획이다. 社名은 62B Systems가 될 예정인데, 출자비율은 Philips가 75%, 송하가 25%이다.

단 세계적인 대기업인 同社의 합작은 EC域内の 경쟁을 억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EC委는 최종결정을 앞두고 경쟁기업에게서 의견을 행하는 기간을 두고 있다.

### 일본의 금후 경제성장 감속예상

全美産業審議會(Conference Board=BC)는 최근, 日本경제의 분석결과를 발표, 국내외의 개인소비의 감소 영향으로, 과거 3년간 5~6%라는 고신장을 계속해 온 경제성장이今後 감속할 것이라는 예상을 표명했다.

이에 따르면, 日本경제는 과거 1년간, 심각한 유동성 부족과 美國에서의 日本제품에 대한 수요하락에 대한 것으로 계속하여 성장을 보였다.

日本은 최근의 주가 하락세를 극복, 또한 공정보합 하락도 있어서 경제, 금융시장의 위기는 사라졌다고 CB는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今後의 日本 경제에 대하여, 급격히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장은 완만하게 減速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 先行指標은 계속 저하하고 있지만, 多少 완만하게 저하되고 있으며 이것은今後 鑛工業 부문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景氣 선행지표 저하의 원인에 대해서는, 주택과 耐久消費財,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 일본 반도체 3社, 4M DRAM 생산 하향조정

히다치, 도시바, NEC 등 일본의 반도체 3社는今後 본격적인 수요증가가 예상되었던 4M DRAM의 생산계획을 下向수정할 방침을 표명했다. 美國 경기회복의 지연을 배경으로 한 퍼스컴 수요의 침체가 주요인이다.

업계가 기대하고 있던 9월에 접어들어 수요확대도 바람직하지 못해, 기술혁신과 함께, 반복되어 온 반도체의 세대교체에도 변화의 기미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초봄부터 4M DRAM 수요는 최대수요처인 美國 퍼스컴 업계의 부진으로, 日本 국내도 상승되지 않고, 침체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히다치, 도시바, NEC의 上位 3社는 각각 今年 年末에는 月産 500万個의 생산체제를 만들어, Full 생산을 當初 계획하였으나 공급과잉으로 인한 업계에 대한 타격을 우려하여 생산 계획의 수정을 단행하였다.

현재, 月産 350万個개의 히다치 200万, 300万個의 생산능력을 갖춘 도시바, NEC는 당초 계획보다 10~20% 낮은 생산수준을 염두에 두고 계획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 일본, 光 CATV시스템 개발 3개년 계획

일본의 郵政省은 CATV의 多채널화와 고품질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멀지 않아 3個年 계획으로 光 CATV 시스템의 개발을 착수한다.

光 CATV 시스템의 실현에 대해서는, 郵政省의 CATV 디지털 전송 조사연구회가 금년 봄의 중간보고에서 "CATV 100채널時代에 대응한 次世代 시스템"으로써 다음과 같은 光증폭

기를 비롯한 光傳送技術 도입에 의한 “光 아날로그 CATV 시스템”의 개발을 제창하고 있다.

- ① 간선부분에 光Fiber를, 분배부분에 同軸케이블을 이용한 光/同軸 Hybrid CATV 시스템(타입 I)
- ② 전송로, 증폭기, 분배기 등을 모두 光Fiber한 것인데, 시설구역내에 복수배치할 증속·제어기에 의해, 가입자가 희망하는 프로그램만을 선택하여 제공하는 光·Demand 액세스 CATV 시스템(타입 II).
- ③ 光증폭기·光분배기를 최대 활용하여, 光Fiber에 의한 Tree型 Network를 구축하는 光·全 채널분대 CATV 시스템(타입 III) 등

郵政省에서는 이 연구성과에 입각할 光CATV 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델 실험 등을 통하여 도입의 목표가 되는 표준적 시스템을 확립하여, 同시스템의 실현을 도모해 나아가갈 생각이다.

### 일본 전자업계, 스페인시장에서 맹위

'92년의 바로셀로나 올림픽, EC의 시장통합을 앞두고, 스페인에서 日系電機 業계의 동향이 활발해지고 있다. 내년으로 이어지는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한 수요확대 전략과 동시에 '92년 EC市場統合후, '93년부터 EC域內의 關稅가 Zero가 됨에 따라 스페인 국내에서의 시장경쟁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스페인의 경제성장은 '89년에 4.9% '90년에 3.7%로 성장률 둔화의 경향은 있지만, EC域內各國中에서는 순조로워 내년의 올림픽과 엑스포를 대비하여, 今後는 경제상황도 상승(스페인 松下)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한편, EC市場統合을 대비하여, 스페인도 완전히 자유경쟁시대에 돌입하였으므로, 특히 AV기기를 중심으로 전략의 수정이 요구당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스페인 현지 생산업체 중에서 스페인松下가 청소기를 年間 100万台, Hi-Fi(스

피커) 年間 100万台, 거치형 年間 10万~15万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을 증산해 나아가갈 계획이다.

청소기는 年間 120万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三洋電機貿易은, 스페인의 日系 기업중에서 가장 빨리 진출, 2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어, 시장점유율도 컬러TV는 Philips와 同率인 13%, 거치형 VTR에서도 1위, 8mm 비디오도 Sony에 이어서 2위의 실적을 나타냈다.

현재의 두개의 공장을 갖고 있는데, 컬러TV를 年間 5万台를 생산하였다. '93년 이후의 자유화에 본격 대비하여, 영국의 컬러TV, 독일의 거치형 VTR의 생산과 연동, 스페인 국내에서의 생산강화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三洋스페인은 컬러TV의 R&D를 갖는데, Sharp의 기본설계를 본격화, 영국과의 공동 사용 등에 의해 경쟁력 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 Sony가 현재 컬러TV의 第2공장을 바로셀로나 근교에, 또한 Sharp도 컬러TV의 제2공장, Pioneer도 바로셀로나 근교에서, 컬러 오디오 관련 생산을 착수했다. OA관련에서는 말라가에 富士通의 프린터 생산거점이 있다.

모두 '92년의 EC시장통합에의 대응을 서두르고 있는데, 스페인 국내시장의 강화와 동시에 EC域內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겨냥하고 있다.

### 일본의 松下그룹의 PCI사업 추진

松下電器, 松下通信工業, 歐洲松下電器 등 松下Group은 퍼스널 정보통신기기의 통일된 생산, 영업, 선전·판촉활동을 실시해 나아가기 위하여 PCI사업 Group을 제작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아가게 되었다.

보통, 정보가전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전화기, 워드프로세서, FAX, 퍼스컴 등 OA, 퍼스널기기로써 취급하고 있는 상품을 同Group에서는 PCI라고 총칭하고 있다.

이 PCI 관련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것은 松下 Group 중에 松下電器를 비롯, 松下通信工業, 歐洲松下電器, 松下電送, 松下專 등이 있는데 각각 다양하게 상품개발에 대처해 왔다.

이 그룹의 제품은 개개의 상품개발, 판매전략으로 종전에는 통일성은 없었지만, 총합력을 발휘하여 더욱 강력한 체제를 하기 위하여, 이번 PCI사업 그룹으로써 Group이 개발하는 상품에 대하여 유저층에서 보아서 하나의 사업부, 하나의 공장에서 출하되고 있는 상품처럼 디자인, 기능, 인터페이스, 상품개발의 Concept 등에서부터 선전, 판촉활동까지 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 PCI 사업 Group의 담당부서는 松下電器 Living 사업본부에서 관장한다.

이 Group 사업의 제1탄으로써 松下電器가 개발한 소형·경량의 Just Wordprocessor “슬라라”, 松下通信工業이 개발한 3타입의 3機를 취향에 맞추어서 6대까지 증가시키는 코드리스 자동응답 전화기 DX시리즈 “데넨노텐” 器가 개발한 퍼스널FAX “오닥쿠스”의 3제품이 10월에 발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니, 영화배급회사 설립

Sony Pictures Entertainment社(舊·콜롬비아 Pictures Entertainment社)은 최근 日本에서 子會社로써 주식회사 Sony Pictures Entertainment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日本에서는 콜롬비아 및 트라이스타 영화에 관계되는 극장배급업부는 「콜롬비아 트라이스타 영화」가, Home Video의 배급은 「RCA 콜롬비아 픽처스 비디오」가, 또한 영화 및 비디오 프로그램의 日本 국내의 방송국으로의 배급은 「日本 국제 Enterprise」가 시행하였으나, 新會社는 이 3社를 통합한 것이다.

설립은 10월에 하며, 12월 1일에 영업을 개시한다. 자본금과 자본구성은 미정이다.

新會社의 조직은 콜롬비아, 트라이스타 영화

사업본부, 콜롬비아 트라이스타 TV 사업본부의 3本部別로 하며, 비디오부문은, 현재 포니캐니온 판매에 위탁하고 있는 카세트의 판매체제를 변경할 계획이다.

### 日·住友商事, 미국 HDD업체에 자본참여

일본의 住友商事는 최근, 1.8인치 컴퓨터用 超小型磁氣記錄裝置(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개발한 미국의 인티그럴 페리퍼럴社에 자본참여와 함께 同제품의 日本企業用 판매총대리점권을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인티그럴社는 HDD의 개발 및 제조 전문회사로 자본금은 680万弗이다. 住友商事와 美國子會社인 美國 住友商事가 각각 2.8%씩 출자했다.

1.8인치의 HDD는 현재 量産되고 있는 22.5인치의 약 절반의 크기인데, 대형컴퓨터 메이커도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인티그럴社는 今年 10월에 同社 덴버공장에서 생산을 개시하고 日本에서도 컴퓨터 메이커 등과 제휴하여 내년 4월부터 陽傘을 개시할 계획이다. 내년은 전세계에서 약 8,000万弗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 반정도가 對日本 기업에게 판매할 예정이라고 한다.

### IBM, 셀룰러電話網으로 音聲, 데이터 送信

IBM은 3가지 미디어를 통하여 音聲과 데이터를 送信할 수 있는 경량 컴퓨터 터미널을 발표했다. 「9075 PC Radio」라는 노트북, 사이즈이다. 510 MHz, 80·186 마이크로 프로세서 탑재, 640KB의 RAM, DOS Operatry System으로 무게 5~6 파운드이다. 배터리電源의 사양이다.

同社의 산업제품 기획부장은 세계의 통신기술을 一體化한 것 중에서 가장 특징있는 것은 셀룰러 전화망으로 음성, 데이터를 送信할 수 있는 성능이라고 표명했다. 또한 IBM=Motorol

a 共同無線 네트워크 「Ardis」와 전화회선과 IBM의 소프트웨어 외부발주의 通信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通信한다. 발매는 제4/4分期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티켓은 서비스業의 屋外 業務者用이다.

### EC국가의 최근 R&D개발 지원 동향

EC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회원 12個國의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재정지출은 작년에 450億 ECU를 기록하였다. '85년의 물가·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하면 최근의 신장은 연평균 2.2% 증가된 것이다.

軍事研究를 제외하면, 신장은 연평균 2.4%로 상승하게 된다. 한편, 12個國의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 지출의 비율은, '85년의 1.07에서, '90년에는 0.95%로 감소하였다.

이런 이유로 EC統計局은, 연구개발지원에 힘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장은 경제 활동 전반의 신장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최근 연구개발 지출의 對 GNP 비율이 상승한 국가는 서독,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등이다.

EC統計局은 또한 '87~, '89年間은 연구개발 지출의 對 GDP 비율이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 시기 연구개발 지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公共財政의 비율이 후퇴하여, 기업의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C는 연구활동의 목적으로서, 과학지식 전반의 진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산업부문의 연구를 중시하는 나라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아일랜드와 벨기에가 뛰어나다. 또한 군사연구를 우선한 나라는 프랑스와 영국이다.

### 獨逸의 베를린 전자쇼 성황

지난 8월 30일에 개최된 國際 가정용 전자기기전(베를린 쇼)이 8日 폐막, 51万 5,000名이라는 과거 최고인 관람객數를 기록하였다. 주최자 AMK 베를린에 의하면, 이 중 관계업자로서의 등록을 마친 것을 内外에서 防名, 또한 18%가 舊東베를린을 제외한 舊東獨으로부터의 입장객이었다.

今年는 디지털 콤팩트 카세트(DCC)와 미니 디스크(MD), 16對9 화면의(橫長) 컬러TV 등이 발표되었다. 독일 가전시장에서는, 今年 컬러TV와 VTR 테크의 판매대수가 작년에 못미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하여 유럽의 家電업계에서는 Wide화면을 하루빨리 원가절감을 시켜 시장에 투입해야 할 상품이라는 평판도 일고 있다.

다음 베를린 전자쇼는 '93年인데, EC市場統合 後 최초의 개최인 만큼, 東歐市場의 개방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보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